2009359660

차례
머리말

01 뉴라이트의 인간관

인간은 이기적 존재일 뿐인가?
정치인가, 정략인가
역사란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
연대하고 공존하는 인간
언어가 만들어준 '사회적 동물'
자기 사회를 배신하는 자들

02 뉴라이트의 국가관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은 내게 무엇인가
한반도 분단을 보는 시선
이승만을 똑바로 보자
민족과 국가 이간질하는 건국절 주장

03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란 무엇인가?
일본 극우파 따르는 관점
'연평균 3.6% 고성장'의 함정
달걀을 수탈하려면 닭에게 모이를 준다
식민 통치의 목적은 종속화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까닭

04 뉴라이트의 이념

어떤 '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로 이름을 바꾸어 단 자유주의
산업혁명의 선물 자유주의
경제 자유주의와 사회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한 착근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위험성
승자를 받들고 강자를 좇아

05 뉴라이트의 문명관

어떤 '뉴코리아'를 바라보는가?
자본주의를 유일한 문명으로 보는 뉴라이트
자본주의를 역사적 현상으로 본 마르크스

환상의 콤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지구의 심복지환이 된 인류
자원의 벽 앞에 선 자본주의
새로운 계급사회를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06 뉴라이트의 민족관

왜 민족주의를 미워하는가?
하이퍼내셔널리즘에 대한 반성
민족과 민족지상주의 혼동하는 뉴라이트
있던 민족이 우긴다고 없어지나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국사 해체’ 주장

민족주의에 웬 색깔?
민족주의와 싸우는 희한한 극우파

07 뉴라이트의 대미관

왜 미국 아니면 못 살까?
원교근공에서 근교원공의 세계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미국의 신제품, 대한민국 건국
즐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스
‘뉴’라이트 아닌 ‘올드’라이트
새로운 세계의 부적응 국가, 미국
자원 한계 무시하는 캐치업 이론

08 뉴라이트의 경제정책

선진화, 어느 방향인가?
민영화가 ‘선진화’로 둔갑한 사정
자연독점의 문제
캐치업 이론의 비현실성
비상한 목표를 위한 비상한 수단
고속 성장을 위한 공안 정국

09 뉴라이트의 자본관

‘자본’은 돈만을 의미하는가?
‘도덕적 해이’ 아닌 ‘도덕적 과탄’
자본주의도 잘 모르는 뉴라이트
만수, 청수,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조직력의 두 종류, 본당과 브리징

사회적 자본 성장을 차단한 박정희 정권

브리징 조직력을 차단하는 ‘명박산성’

10 뉴라이트와 친일파

아마노 미치오를 뒤따르려는가?
뉴라이트의 선지자, 아마노 미치오
내선일체동화론자의 절규
내선일체동화론자의 논리
전향자의 열정

동화일체론의 부활인가
친일의 다양한 스펙트럼

11 뉴라이트와 친미 내셔널리즘

그들은 ‘친미 내셔널리즘’을 꿈꾸는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재인식
빈약한 비전과 과잉된 정치성의 산물
조관자의 논문을 왜곡하지 말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실린 아까운 논문들

조관자의 이광수와 이영훈의 이광수
편집자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양심

12 뉴라이트와 주류 역사학계

뉴라이트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우겠다

치료받지 못한 민족의 트라우마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뉴라이트에 빌미를 준 민족 과잉 역사관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카터 에커트의 분석

권위주의 정권은 식민지 시기의 유산
극우의 눈에는 모두가 좌익이다

13 뉴라이트의 대북관

사악한 것인가, 우둔한 것인가?
사악하고 우둔한 자, 과연 누구인가
북한의 파멸을 바라는 세력
벨벳 혁명의 허점

정말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려는가
제발 남북 관계만은.....

14 뉴라이트와 ‘대안 교과서’

역사를 ‘과학’이라고 보는가?
학문에 ‘특허권’이 없다니?
학문적 책임 지지 않는 교과서 집필
사회과학자와 역사학자는 어떻게 다른가
민중사의 대안으로 제출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사

학문적 도전 아닌 정치적 책략

15 뉴라이트의 승리주의

‘승리’가 곧 ‘성공’인가?
역사의 의미가 ‘성공’에만 있는가
경쟁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인가
과국을 격화시킨 신자유주의 노선
자본주의 신앙고백 뉴라이트의 역사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만 보려는 집착
‘실패’의 역사에서 배우라

16 뉴라이트와 역사 교과서 파동

‘교과서’를 불쏘시개로 아는가?
교과서란 원래 융통성 없는 물건
역사교육은 양날의 칼
민주화의 결실, 교과서 검인정 제도
역사학계 폐쇄성보다 뉴라이트 폐쇄성이 문제
절차가 중요하다

17 뉴라이트와 보수주의

이 땅의 보수를 죽이려는가?
합리적 보수를 향한 열망
역사관 없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자본주의 신앙의 편협성과 독단성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
“이 땅의 합리적 보수는 죽었는가?”

18 뉴라이트 대처법

그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200년 전 세상에서 찾아온 타임머신
무리한 역사관과 무리한 정책 노선
정치 발전을 보여주는 ‘촛불’

위기를 기회로
되살려야 할 인간적 가치들

부록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서평
_역사책? 글썸다, 교과서? 아니다
후기